

섬김: 희생의 열매

성경 본문	출애굽기 1:15~22
요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20~21절).
찬송	440장(통 497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595장(통 372장, 나 말은 본분은)
이과의 목표	히브리인들의 산파였던 십브라와 부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희생적 섬김을 실천하며 살기로 결단한다.



I. 생각하기

1.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나누어 봅시다.
2.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II. 생각 넓히기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No Pain, No Gain)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 격언을 제목으로 노래나 영화를 만드는 것을 보면 이 격언에 대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격언은 성경의 정신과도 일치합니다. 시편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시 126:5-6)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수고를 별로 하지 않고, 기도도 많이 하지 않고, 땀 흘려 씨를 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다가 주인에게 크게 책망을 받은 자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살았던 십브라와 부아라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히브리 여인들의 산통에 동참했던 히브리 산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껴앓음으로 이스라엘의 태동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건들과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브라와 부아에 관한 이야기를 꼭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기를 기록하게 하셨을 때 그들의 이야기를 첨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산파인 십브라와 부아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는지를 이제 추적해 봅시다.

1. 희생적으로 섬겼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대적과 함께 싸우고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고 학대하며 자신을 위해 국고 성 비둠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된 노동과 힘겨운 생활 속에서도 히브리인들은 더욱 번성합니다. 그러자 두려움이 극에 달한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인들의 번성을 막기 위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아를 고용하여 잔인한 산아 제한 정책을 펴게 됩니다. 바로는 두 산파에게 히브리 여인들의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피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에게 어떤 해악이



닥칠지를 뻔히 알면서도 남자 아기들을 살려두기로 선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기 동족인 히브리 여인들을 위해 희생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나 명예가 되는 일이나 칭찬 받을 수 있는 일은 기쁘고 즐겁게 섬길 수 있지만,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희생이 요구되는 일은 망설이기가 쉽습니다. 만약 십브라와 부아가 바로의 명령을 따랐다면, 즉 바로를 섬겼다면 바로 왕에게 칭찬을 받고 부를 누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희생을 각오하고 산모들의 해산을 돕기로 선택합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긴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적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되었습니다(20절 참조).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내려 놓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 주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신 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희생적 섬김을 실천하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십브라와 부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 같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것 같이,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2.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십브라와 부아가 남자 아이들을 살려준 일을 알게 된 바로 왕이 그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들은 바로에게 불러가면서 죽음이 임박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라는 바로의 추궁을 받고 있는 두 산파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그런데 그들의 답변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들은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출 1:19) 라고 대답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왕의 명령을 따르는 시늉이라도 할 법한데 그들은 당당해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애굽 왕 앞에서 히브리 여인이 애굽 여인보다 더 건장하다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들이 바로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두 산파가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살린 것과, 바로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십브라와 부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21절). 그들은 애굽 왕 바로가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바로를 두려워했다면 결코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산모들을 섬길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야 십브라와 부아와 같이 희생적 섬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산파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출애굽기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짐작되지 않습니까?

3.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히브리 여인이 애굽 여인보다 건장하여 그들이 남자 아기들을 죽일 수 없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의 심기는 무척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당시 세계를 재패하고 있던 애굽의 왕이 구차한 변명처럼 들리는 그들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십브라와 부아는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왕 바로의 명을 어기고도 무사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20절)라고 대답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함으로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자기 백성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선택한 산파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산파들을 보호하고 계시는데 바로가 그들에게 어떤 해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두 산파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산파의 집안을 흥왕케 하시는 축복까지 내려주셨습니다(21절).

한국 안산제일교회 집사 부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불신자였던 정집사는 과실치사라는 항변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선고받아 감옥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성실하게 수감 생활을 하던 정집사는 무기수로, 무기수에서 장기수로 복역을 하던 중 자기를 섬겨주던 오집사와 교제를 하게 되었고, 8년 동안 사귀다가 옥중 결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복역 17년 만에 특별 사면을 받아 출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후 이 부부는 집사로 임명받아 이삭 장애인 선교회를 자비량으로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형수였던 남자 집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유학까지 다녀와 종합병원에서 치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집사는 초등학교 4학년 중퇴에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인데, 남자 집사는 17년 동안 자기를 기다리며 희생적으로 섬겨 준 아내를 위해 남은 생애를 다 바치겠다고 아내의 손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부부가 보여준 것과 같이 사랑은 섬김을 통해 표현되고, 순전한 섬김에는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희생이 없는 섬김은 온전하지 않으며, 섬김이 없는 사랑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으로 서로를 희생적으로 섬겨주는 이 부부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희생적 섬김의 삶을 통해 온전한 사랑을 실천해 갈 때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까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III. 생각살기

1.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대하시는 희생적 섬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2. 생명을 살리는 일과 관련하여 우리 소그룹이 함께 섬길 수 있는 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나누어 보고 실천합시다.

